

自然을 復元하자

金 根 熙

(漢大教授·理博)

사람, 動物, 植物, 山, 河川과 바다는 다 必要가 있어서 造物主에 依해서 創造된 것이다. 이것들을 “自然”이라는 單一有機體의 한 肢體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의 相互間에 授受의 배란스와 循環의 調和를 이루면서 永遠히 存續發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人間만은 知識과 智慧가 있으므로 自然에 適應하고 高度로 利用하면서 오늘날의 文化를 이룩했고 生存해 왔다.

이 過程을 좀 들여다보면 人類는 不斷히 自然을 征服한다는 생각만으로 사러왔다. 現代에 와서는 人類生活의 便利와 利益만을 追究하는 나머지 開發이라는 이름아래 山은 마구 까치고, 두 동강이 나고, 허무러져가고 있다. 河川과 바다는 工業廢棄物로 汚染의 度を 넘어서 들은 죽어가고 물고기는 滅種되어가는 自然破壞過程이 進行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눈을 돌려보면 名物인 호랑이는 山에서 자취를 감춘지 오래이고 노루도 토끼도 山에서 보기 힘들게 됐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結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큰 問題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한몸(體)에서 있어야 할 要素가 없어지므로 배란스가 깨져가고 있는 것이요 人類의 生存을 危殆롭게 해가는 증거라고 해서 過言일까?

自然科學은 自然의 本質을 究明하고 技術은 그를 人類生活의 便利와 繁榮을 위하여 應用하기로 한다. 그러나 人間의 知識發展에는 항상 밝은 部分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 다닌다.

그의 본보기로서 原子力이다. 物理學者들이 原子核分裂의 지식은 얻었지만은 그것이 原子彈의 原理로 利用됐고, 現在 地上에서 美蘇가 保有하고 있는 原子彈의 數만 해도 二次大戰時에 日本廣島에 떨어뜨렸던 原子彈規模의 것이 130萬個나 된다고 한다. 이 엄청난 위력은 地球를 몇번이고 焦土化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可恐할 일인가. 原子力을 發電等과 같은 平和의으로 利用한다고 하더라도 放射能廢棄物은 累積되어가고 있으니 몇 100년이 지난 後의 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적은 예로는 좋은 農藥이 發明되어서 벌레는 죽일 수 있게 되었지만은 그로 因한 重金屬의 蓄積은 날로 늘어나는 副作用이 커져가고 있으니 技術이 항상 人類에 利益만을 갖어다 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時點에서 人間은 人類保存을 위해서 自然復元에 머리를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눈을 돌려 보자. 우리들의 生活水準이 높아져감에 따라서 景勝地, 名所를 찾아서 自然을 즐기게 되었지만 물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할키우고 짓밟혀서 自然은 훼손되어가고 있다. 거기에다가 商魂은 稀貴木과 奇石怪石의 採取, 遊興場의 建立 등으로 自然의 景觀은 이그러져가고 있다. 정말로 非常한 작성과 自然을 研究하고 造成하며 自然을 보호하는 制度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서 우리나라에서는 汎國民的인 自然保護運動과 自然復元の 教育과 精神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절감한다.